

축산업계

소식

제13회 마니커 종계경영자 세미나 개최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2월 23~24일—



마니육종은 제13회 육용종계경영자세미나를 200여 명의 종계경영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지난 23~24일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제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계업자는 여러가지 목적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그 산업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잘해보자”는데 세미나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23일 첫날은 이종선 차장의 “종계사양관리에 있어

서 중요 포인트”, 한국경영연구원장 최원문 박사의 “경영철학과 기업경영 전략”, 오경록 전무의 “닭의 면역기전과 효과적인 질병예방”, 정기홍 차장의 “왜 소형 육용종계의 육종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이어 제9회 마니커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날 24일은 김호섭 상무의 “90년대 닭고기산업과 육계산업”, 가축위생연구소장 박근식 박사의 “종계장과 부화장의 위생관리 실제”, 홍광표 상무의 “육용종계 케이지 사육과 평사 사육”, 이명범 부장의 “1990년 부화경기동향”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종계 생산성 저하 정부차원 해결키로 —종축개량협의회에서—

5년전부터 종계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종계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종계장에서 종계의 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지만 쉬쉬하며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피해가 컸던 생산성 저하문제에 대해 앞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인식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지난 20일 대규모 부화업체 대표들이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가져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난 2월 24일 축협에서 개최된 종축개량협의회 닭분과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대응은 유보하여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기로 하였다.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 —2월 6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6일 뉴캐슬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캐슬병은 지난해에도 전국 각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금년에 들어서

는 경기, 충남, 전북, 경남·북지역에서 뉴캐슬병이 발생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 병이 발생한 농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본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은 농가여서 양계농가 특히 육계농가에서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기본프로그램대로 예방접종을 해도 뉴캐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오염농장에서는 올인 올아웃 사양관리와 함께 1일령때 생독 B₁백신을 점안 접종하고, 동시에 사독오일백신을 육계는 목 피하에 채란계는 대퇴부 근육내에 주사하면 8주령까지 좋은 방어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유림 육계계열화사업 설명회 개최

— 2월 28일, 강원도 화천에서 —



농촌잘살기 운동자진 참여 의식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 유림상사(대표 김풍림)는 강원도 화천군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화천농촌지도자 연합회와 한국육계산업발전 협의회 후원을 얻어 계열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수입개방에 따른 양질의 축산물생산, 안정된 생활 기반조성, 농가와 유대강화를 통한 지원 조성을 방침으로 하여 화천군내 사업으로 펼쳐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질병문제로 사육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중부권에서 하고 있던 계열화사업을 점차 충청지역인 강원도로 옮겨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어 경쟁력을 갖고

생산되는 계분은 전량 강원도 지역에 알맞은 고냉지 채소재배농가에 지원하여 유기농법 개발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시행해 갈 예정임을 이번 설명회에서 밝혔다.

닭고기 유통·외식업체 3일간 휴업

— 육계값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 —

닭고기 유통·외식업체들은 육계가격이 1,400원 이상으로 치솟고, 이마저 구하기 어려워지자 업체들이 육계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3일간 휴업하기로 했다.

멕시코칸양념통닭, 페리카나, 처갓집양념통닭 등 닭고기 외식업체는 3월 2째주에 전매장이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강행할 예정이다.

한편 육계상인들도 외식업체와 같이 3일간 동조휴업하기로 하였다.

낙농유우산업 위기극복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한 「낙농유우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회원 및 관련업계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낙농유우산업은 최근 우유소비 부진에 따른 분유 재고 누증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어 특히 사유업체 납유농가는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생산자 4명이 한국낙농육우산업 현실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은후 ▲선진국의 낙농육우산업 정책방안—정영일(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수입개방압력 대처방안—권원달(충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농림수산부의 낙농육우산업 정책방향—신구범(축산국장), ▲낙농육우산업 안정대책을 듣는다—김영진(평민당 의원), ▲낙농육우인의 단합을 통한 위기극복—서기원(농협대 교수)등이 토론되었다.